

니콜라 부리오 감독 추천 작품 9선

광주비엔날레 9월 7일 개막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판소리
광주비엔날레 형식에 차용 계획”



비앙카 봉디 작 'The Antechamber' <광주비엔날레 제공>



조세파 응잠 작 'Myceaqu Vitae'

작품 속 환경·생태...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추천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존재 의미가 있다. 또한 모든 존재는 나름의 울림이 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 주제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다. 마당이라는 장소에서 신명의 울림을 공유했던 우리 전통문화에서 착안했다.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다양한 생명체와 사물의 관계를 어울림이라는 관점으로 돌아본다. 특히 판소리를 매개로 공간을 탐색하며, 아울러 오늘날 전 지구적 화두로 대두된 인류세 문제를 담아낼 예정이다.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한국의 판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땅과 관련된 장르라는 특성 때문”이라며 “지역과 지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판소리를 비엔날레 형식에 차용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이번 전시에서 동시대를 관통하는 주제인 환경, 생태 등을 구현해 온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다음은 예술감독이 추천하는, 9명 작가의 작품 9선이다.

▲박미미=박 작가의 설치작품은 연관성 없는 세

계가 서로 공존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 'circuit'은 관련 없는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하나의 회로처럼 보이는지 주목한 작품이다. 소품을 토대로 구현했으며, 접근이 가능한 하나의 소우주로 완성되는 장면은 관객을 사유하게 한다.

▲조세파 응잠=작가는 다양한 인터넷과 자연과학 서적, 사진 아카이브 등에서 자료를 수집 후 이를 재조합한다. 이를 매개로 정체성 내지 인종을 품은 헤게모니를 해체한다. 생물 발광 유기체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Myceaqu Vitae'는 우주에서 바다를 펼쳐놓은 듯한 장면으로 시선을 끈다. 과학과 기술, 미학 사이에 드리워진 서사, 공간에 대한 신화 등에 질문하게 하는 작품이다.

▲비앙카 봉디=비앙카 봉디는 시각을 초월하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The Antechamber'는 이격된 사물들이 액체와 하얀 소금 언덕으로 둘러싸여 연결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상호 연결성, 덧없는 삶과 죽음의 순환이라는 주제로 수렴되는데 생태학과 오컬트 과학을 결합한 아우라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가트야 노비초코바=노비초코바는 생물학과 진화에 관심이 많은 작가다. 특히 데이터 이미지를

GIF로 조합한 작품은 야생동물의 사진, 천문학, 달팽이 배아 등이 빠르게 교체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미지 과잉에도 시적인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기를 위한 의도다. 이미지 논리를 비롯해 기계와 사람, 이미지 과잉 등 이미지들 간의 관계에 속고를 요한다.

▲아콕 K 스티븐=작가는 물인형 환경을 통해 환경과 관계를 파괴하고 재구성하는 생태학적 내러티브를 구축한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습지 또는 그 주변을 토대로 건설됐지만, 습지는 방대한 역할만큼 주목받지 못했다. 'Berl-Berl'은 눈을 모티브로 현대 도시의 기반인 습지에 의미있는 시각을 부여한다. 그가 구축한 가상의 높은 현장에서 반응하는 사운드와 숨을 쉬고 박동한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시디아 미르자=프로젝트 'Iceberg Collisions'는 사운드 이미지 매핑을 매개로 남극의 빙하 충돌 소리를 연구하는 프로젝트. 빙산 깊은 곳에서 발생한 균열로 빙하가 진동하는 소리를 데이터로 들려준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의 분해를 재현한 설치작품은 지구의 풍경에 대한 의미있는 기록이다.

▲맥스 후퍼 슈나이더=작가는 생물 다양성과 역



박미미 작 'Circuit'

동성을 토대로 다양한 장면을 보여준다. 사물과 폐기물, 얼어붙은 산호초를 대립해 인류세 생물을 위한 대안 생태계를 구현한다. 쓰임을 다한 물건들은 작가에 의해 다른 순간들을 보여주고, 아울러 파괴를 담고 또 다른 생명을 품는 지대로 전환한다.

▲마르케리트 위모=위모는 선사시대부터 미래

세계를 관통하는 오래된 것에 초점을 맞춘다. 소리, 조각, 퍼포먼스 등의 작업을 통해 종의 멸종이나 멸종된 풍경이 남긴 여백에 생명을 불러넣는다. 특히 작가는 판소리라는 주제에 맞게 복을 설치 작품의 중심으로 두고, 소리란 이남치와의 협업을 한다. 소멸한 판소리를 복원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해석을 유도한다.

▲이예인='System of In-between State' 시리즈는 사이보그적 형태를 이루는 혼종성과 취약성을 상징한다. 인간과 기술 구조를 결합한 조형물은 새로운 형태로 살아남지, 아니면 쇠퇴할지 가능성이 어렵다. 작가는 버려진 제품에 전기 케이블, 접착제 등을 융합해 조형물을 만드는데 빠르게 전개되는 기술산업에 대한 반문을 제기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풍부한 저음, 아름다운 선율... '첼로'의 낭만 속으로

'클리베 첼로앙상블' 정기연주회
8월 4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인 '클리베 첼로앙상블'이 정기연주회를 연다. 광주·전남 출신 초·중·고교 및 대학생, 성인 첼리스트 30여 명이 앙상블 및 솔로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클리베첼로앙상블(단장 이후성)이 'KLIEBE CELLO ENSEMBLE 정기연주회'를 오는 8월 4일 오후 6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차이코프스키부터 비발디, 손경민 등 국내외 작곡가들의 다양한 악곡을 '첼로'로 감상하는 자리다.

전남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광주시향 첼로 부수석을 맡고 있는 이후성 단장은 "Klang(음색)과 Liebe(사랑)라는 두 표현을 합친 '클리베'는 첼로 특유의 음색을 사랑하는 연주자들이 모인 앙상블을 의미한다"며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어린 연주자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작품과 성인들의 숙련된 레퍼토리가 어우러질 것"이라고 했다.

공연의 막은 제69회 호남예술제 성악(장려상) 출신인 이우비(광주 만호초1)가 툴리의 무곡 '가



클리베첼로앙상블이 '정기연주회 리허설을 진행하는 모습. <클리베첼로앙상블 제공>

보트'로 연다. 이어 이자후(블로초1)는 퍼셀 곡 '리고동'을, 백서운(여수 여도초3)은 베토벤 '미뉴엣 G장조'를 들려준다.

제69회 호남예술제에서 금상을 받은 박주환(세종기독교교8)은 파가니니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이수인(광주교대 목포부설초5)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로 관객들을 만난다. 김민준(건국초5), 김예담(여수웅천초3), 박소여(웅

강중3), 김승아(광주교대부설초5) 등이 저마다의 기량을 펼친다.

성인 첼리스트들도 무대에 오른다. 이한솔·이주이·김희진·신주은(전남대 음악학과 석사)을 비롯해 이성주(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채하은(드레스덴 국립음대 입학 예정) 등의 선율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아프리카 리듬·열정, 관객과 함께 두드리다

서구 '아냐포 타악 콘서트' 8월10일 서빛마루문화회관

전 좌석에 수백 대 쟬베를 배치해 관객과 함께 연주하는 공연. 아프리카 전통 타악리듬의 진수를 느끼는 무대.

광주시 서구가 기획공연 '아냐포 타악 콘서트'를 오는 8월 10일 오후 7시 서빛마루문화회관에서 펼친다. 광주충장축제, ACC 월페 등 지역 공연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아프리카 그룹사운드 '아냐포'가 출연, 관객과 호흡할 예정이다.

아냐포(대표 양인선)는 서아프리카의 전통음악인 '만델'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특유의 정서와 한국적 감수성을 가·무·악에 접목해 왔다. 팀명 '아냐포'는 서아프리카 말린게 부족의 말로 '다 함께 연주하자'라는 의미다.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1인 1악기(쟁베)를 지급하는 이머시브(참여형) 형태

로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뜨거운 아프리카의 태양을 연상시키는 댄스들은 화려하고 정열적인 군무를 보여준다. 생소한 아프리카 전통악기인 쟬두논바, 쟬상박을 비롯해 벨켄 케니, 크린, 발라폰 등의 리듬도 느낄 수 있다.

정해진 레퍼토리도 있지만 '즉흥성'에 기반한 아프리카 리듬이 울려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백 대 아프리카 타악기를 관객과 함께 두드리는 공연은 성인 뿐만 아니라 어린이 관객들도 즐기 좋다. (5세 이상 관람 가)

아울러 아프리카 민족의 개성을 살린 전통 의복들도 볼거리다. 물걸, 체크 등 독특한 패턴과 어우러지는 북소리, 육체미를 과시하는 무용수의 몸짓 등은 이목을 사로잡는다.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냐포'. <서빛마루문화회관 제공>

아냐포 양인선 대표는 "1인 1악기 관객 참여형 공연"을 표방하는 이번 콘서트는 저마다 생김새와 문양이 다른 쟬베를 전자석에 배치해 관객들이 공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아시아의 국수와 커피, 그리고 공예

ACC, 하반기 靑 문화예술 교육

국수는 아시아에서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다. 베트남을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은 저마다 독특한 국수가 있다. 면의 종류와 굵기, 레시피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국수는 각 나라 음식문화를 대변하는 음식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올 하반기 진행하는 'ACC 아시아 문화예술 교육(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은 아시아의 국수와 커피 외에도 아시아 공예 등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아시아 국수와 커피를 배우는 'ACC 아시아 의식주 여행'과 아시아 공예와 문자, 춤을 배우고 체험하는 'ACC 아시아 예술체험'이 그것.

먼저 인류학자 및 작가가 강의하는 '아시아의 의식주 여행'은 8월~11월까지 총 12회 진행된다. 첫 번째 교육은 전남대 이기중 교수가 '아시아 국수 로드' 강의로 문을 연다.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국수의 역사는 물론 대표 볶음국수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윤오순 작가가 한·중·일 커피 산업의 역사를 설명하는 '아시아 커피 로드'를 진행한다. 동아시아의 생두와 원두의 특성은 물론 직접 커피를 내리는 등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는 'ACC 아시아 예술체험'은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6회 열린다. 교육은 '아시아 공예'와 '인도네시아 공예'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아시아 공예'는 아시아의 다양한 공예



'ACC 아시아 문화예술 교육' 장면. <ACC 제공>

(바틱, 칠공예 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국 나전칠기의 예술적 특징과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다. 직접 나전필법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펼쳐진다.

'아시아를 새기다'에서는 문자와 인장(印章) 문화, 그 가운데 전통 인장의 특성을 알아본다. 아울러 나만의 인장을 제작하며 아시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인도네시아 전통 염색 기법인 '바틱(Batik)' 문화를 배우는 '인도네시아 공예'도 있다. 문양을 디자인한 후 무늬를 넣는 천딩도구와 악수를 활용한 즉자형 작품을 만든다.

'아시아 예술로 나를 깨우기'에서는 인도의 전통 춤인 '까탁(Kathak)'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신에게 바치는 노래인 '스투티(stuti)'도 배우고, 전통 의상을 입은 후 까탁댄스를 체험한다.

참가비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문화재단,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자 공개추천 접수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자를 오는 8월 30일까지 공개 추천 받는다.

이번 공개 추천은 지원사업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예술 현장에서 신규 심의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심의위원 인력풀(Pool)이 확충되면, 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의 분야별 심의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추천대상자는 문화예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

사하거나 활동한 전문가다. 구체적인 분야로는 문학을 비롯해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 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이다.

추천 방식은 폭넓은 인력풀 확충을 위해 본인 접수와 타인 추천 접수 두가지로 진행된다. 또한 심의위원 추천은 구급품 양식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서 작성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